



김원이 김종식 배종호 손혜원 윤선웅 이윤석

전남의대 매진 현역 김원이 대항마는?

목포

전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는 내년 총선 1년여가 남은 현재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에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부상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현직이던 당시 민생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을 꺾고 배지를 단 김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매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목포지역위원회 8,000명의 입당원서와 개인정보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는 등 사분오열된 당 조직을 추스려야 하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에 맞서는 이윤석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배종호 세한대 초빙교수, 김종식 전 목포시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박홍률 목포시장과 막역한 관계인 손혜원 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목포시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정근산 기자

3선 도전 신정훈...판 달구는 구충곤

나주·회순

나주·회순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내 3파전 형국이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신정훈 의원에 맞서 구충곤 전 화순군수, 손금주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신 의원은 혁신도시 한전공대 설립의 중추적 역할과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양곡관리법 추진 등 괄목할만한 의정 성과들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 오랜 지역정치로 인한 피로감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민선 6·7기 8년간 화순 군정을 이끈 구충곤 전 군수는 K-글로벌 백신·바이오 거점 기반 확대와 복지 정책 추진



신정훈 구충곤 김종운 손금주

등 군수 재임시절 이룬 다양한 성과들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유의 선 굵은 정치력과 중앙부처 등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강점이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놓고 신정훈 의원과 맞대결을 벌였던 손금주 전 의원의 설욕을 노리며 보폭

을 넓히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이후 지 금껏 지역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운 현 한전 비상 임이스의 출마가 거론된다.

/정근산 기자

농업·농촌·농민 대변자 서삼석 독주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은 재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독주다.

3선을 노리는 서 의원은 1988~1994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이후 1995년부터는 재선 전남도 의원을 지냈다. 2002년 민선 3기 무안군수

로 당선된 이후 군정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후 중앙정치 무대로 발길을 돌려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2018년 6·13 재선거를 통해 의원직을 거머쥐었고, 21대 총선에서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국내 쌀 정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통하는 등 농업·농촌·농민의 대변자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특유의 진화력에 맞춤형 예산확보와 정책구현 등을 통해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서 의원의 대항마로는 2018년과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백재



서삼석 김병도 백재욱 황두남

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다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백 전 행정관은 20여년을 중앙당에서 활동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이력과 오랜

기간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온 점 등이 강점이다.

여기에 무안 출신인 김병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출마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단 부실장을 지냈고, 현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두남 당협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근산 기자

전남에 '공공형 계절근로제' 첫 도입

나주·고흥 농식품부 공모 선정 중소규모 농가 일손부족 습통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기대

전남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도입돼 농번기 일손 부족에 습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3-5개월(C-4, E-8) 단위로 의무로 고용

해야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농작업이 없는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뚜렷했다.

이에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보완해 중소규모 농가에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가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남에서도 처음으로 시행되게 됐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는 나주 배원에 농협과 고흥 풍양농협이 선정됐다. 배정인원은 나주 50명, 고흥 20명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기간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농가를 순회하며 일하게 된다. 농가는 사전에 시군·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남에 배정된 인원은 5개월 동안 월 25일 가량을 일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업분야 계절근로자로 지난해(706명)보다 3.1배 증가한 2,2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농

번기 일손 부족을 덜게 됐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수급 조절이 가능해 농번기 집중되는 인력 수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19일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은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도 단기 고용이 가능한 만큼 도내 대학과 농촌인력 지원 업무협약 등 신자원을 발굴해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이 되도록 총출력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서도 '우회전 신호등' 본격 시행

22일부터 녹색 화살표 도입

전남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본격 도입에 앞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나주시역 12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 준수에 따라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일시적인 차량 정체는 발생했지만 보행자의 안전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운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고 범칙금도 부과되는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만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19일 "우회전 신호등 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형수 의장 최무승 부의장 정달성 의회운영위원장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 최기영 의원 한양임 의원 김건안 의원 기대서 의원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 명절 소중한 분들과 웃음꽃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임종국 의원 강성훈 의원 고영임 의원 이숙희 의원 손혜진 의원 황예원 의원 정재성 의원 신정훈 의원 김귀성 의원 정상용 의원